

## 제목: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학번: 202111989 이름: 유재훈

인터넷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익명으로 댓글을 자주 쓰게 된다. 익명으로 글을 쓰면 더욱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쉽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쉽고 간단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의견들은 언제나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이 악플로 받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고서도 악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심한 욕설을 불러 처리하는 방법이나, 악플을 받은 피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여 악플을 달은 사용자의 정보를 경찰에 넘겨 고소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자신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옛날 '사이월드'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다. 그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여론이 불붙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면 해킹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해킹을 막는 기술보다 해킹을 하는 기술이 더욱더 진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그 당시의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었다. 그렇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찬성여론에서는 "악플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반박을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 년 본인 확인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2월 8.3%이던 악성 댓글 비중은 2008년 8월 14.1%로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머니투데이'와 '디시인사이드'게시판 댓글도 같은 시간 각각 8.6%와 9.9%에서 12.4%와 16.2%로 증가했다. 그렇기에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부실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각자의 개성 있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또다른 방법이며 인터넷을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명 옆에 IP 주소를 걸어 둔다면 인터넷은 더욱더 삭막해지고 재미 또한 없어질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정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며,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신만의 닉네임을 걸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한다.